

초등학생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관련 변인 및 자아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백 혜 정
한국청소년개발원

황 혜 정
경기대학교

이 연구는 초등학생의 문제행동과 자아관련 변인 및 부모관련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탐색해 보고 이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제안을 도출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 초등학교 4학년 학생 2,844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여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의 문제행동은 부모애착, 부모폭력, 부모감독과 같은 부모관련 변인 및 자아존중감, 자아통제 같은 자아관련 변인에 따라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아관련 변인은 부모관련 변인에 비해 문제행동에 보다 직접적이고 깊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에서 문제행동 중 우울·불안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인은 자아관련 변인 중 부정적 자존감으로 나타났으며, 공격성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인은 자아통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덧붙여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감독의 효과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나누어 보았을 때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는 점은 이 연구의 가장 흥미로운 점이라 할 수 있다. 직접효과를 살펴보면 높은 부모감독수준은 초등학생의 공격성 수준을 높였다. 반면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높은 부모감독수준이 자아통제수준을 높임으로써 공격성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문제행동, 부모애착, 부모폭력, 부모감독, 자아존중감, 자아통제

끊임없는 경쟁과 급변하는 사회에 대한 적응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에 있어서 청소년은 물론 아동들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실제로 아동 및 청소년들 중 사회적 부적

응으로 인해 폭력, 가출, 학업중단, 우울, 불안, 자살 등 다양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 예로, 2001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제행동실태조사(이종원, 임성택, 최원기, 최종현, 2001)에 따르면 문제행

동을 경험해본 청소년의 비율이 문제행동 유형에 따라 많게는 68%에서 적게는 1%미만까지 다양하였다. 그중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 무단 외박이 전체의 18%, 왕따가 11%, 자살 시도가 6% 등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문제행동이 정도에 따른 차이는 있겠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비단 극소수에 해당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여기서 생각해보아야 할 점은 거의 대부분의 아동 및 청소년이 사회적응을 위해 많은 것을 요구받고 있지만 그러한 것들을 요구받는 모든 개인이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문제행동을 보이는 이들의 공통된 특성은 무엇인가? 또한 문제행동을 유발하는 보다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인가?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그들을 위한 적절한 개입을 위해서는 이러한 물음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아동 및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은 아동의 기질적 문제에서부터 열악한 환경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요인들의 복잡한 상호작용 속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모든 요인들에 대해 종합적이고도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나 이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 자아관련 변인들과 부모관련 변인들이 초등학생의 문제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하였다.

1. 문제행동

아동이나 청소년의 문제행동이란 일반적으로 부모나 교사의 일상적인 지도 범위를 벗

어나 어려움을 야기하는, 해당 연령에 기초한 규범적 행동으로 보기에 부적절한 행동이나 정상적인 적응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행동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송의열과 이미자(2001)는 문제행동의 개념을 일상생활에서 개인이 보이는 인지적, 정서적, 심리운동 기능적 발달 측면의 행동이 정상적인 개인들이 보이는 범주의 행동과는 달리 발달적 또는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나는 행동상의 비정상을 의미하며 이는 주로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한다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문제행동은 갈등이 표출되는 방향에 따라 외현화 문제와 내재화 문제로 구별된다. 외현화 문제행동은 자신의 행동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로 공격성, 과잉운동, 거짓말, 도벽, 다른 사람을 못살게 구는 등의 행동적인 문제를 의미한다. 내재화 문제행동은 자신의 행동을 지나치게 억제하거나 자신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위축행동 및 불안 행동 뿐 아니라 외로움, 우울, 두려움 등의 정서적인 문제행동을 뜻한다(Achenbach & Edelbrock, 1983).

최근 아동의 문제행동이 주요 관심사가 되는 이유는 아동기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아동의 성장과 더불어 더 큰 사회적 부적응 행동이나 문제행동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아동기의 문제행동은 초기에는 그 정도가 비교적 가벼워 적절한 치료가 가능하다. 하지만 아동기에 발생한 문제행동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특성이 있어 발생초기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 만성화되어 정도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해 나가며 결국 청소년 비행이나 성인 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남소현, 김영희, 2000).

아동 및 청소년들을 문제행동 상황으로 유도하는 원인은 실로 다양하다. 선행연구들은 아동의 성격이나 신체특성과 같은 개인특성(김두섭, 민수홍, 1994; 원호택, 1991), 부모를 포함하여 가족의 물리적, 심리적 환경을 포함하는 가족특성(고성혜, 1994; 김준호, 김순형, 1995; 정유미, 김득성, 1998; Barnes & Farrell, 1992), 학교성적 및 적응 등을 포함하는 학교 관련 특성(김준호, 노성호, 1993), 친구집단 성향과 친구관련 특성(정유미, 김득성, 1998; Barnes & Farrell, 1992) 등을 문제행동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연구자들은 문제행동의 원인을 부모와의 관계를 포함한 가정환경 및 개인의 인지적, 심리적 특성에서 찾고자 하였다(하영희, 2003). Ontario Child Health Study의 종단적 연구(Rae-Grant, Thomas, Offrod, & Boyle, 1989)는 아동의 발달사, 가족적 요인, 인구학적 요인 중 특히 가족적 요인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부모는 자녀들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이다. 부모폭력을 경험하거나(김광일, 고복자, 1987; 노성호, 2004) 부모의 감독수준과 (박진경, 도현심, 2001), 부모의 수용, 온정, 정서적 지지 및 애착 수준이 낮을 경우(Loeber & Dishion 1984; West & Farrington, 1973) 아동 및 청소년들은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행동과 관련있는 개인적 요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자아 존중감이라 할 수 있다. 일련의 연구들(예. 심희옥, 1997b ; Leung & Drasgow, 1986)은 자아 존중감이 낮은 아동 및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더 많은 비행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더불어 자아통제 역시 학업 성취 및 문제행동과 관련하여 자주 언급되고 있다. 한 예로 유안진, 민하영(2001)은 자아통제력과 문제행동 간에는 부적 상관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도 이러한 맥락에서 아동 및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크게 개인의 내적 변인인 자아관련 변인과 환경적 변인인 부모관련 변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였다. 자아관련변인으로는 자아존중감과 자아통제를 중심으로, 부모관련 변인으로는 부모의 폭력, 애착, 감독을 중심으로 이러한 변인들과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2. 자아관련 변인

자아관련 변인과 관련하여 많은 선행연구들은 자아존중감과 자아통제 변인이 특히 개인의 문제행동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우울, 비행, 폭력 등 다양한 심리사회적 부적응(심희옥, 1997a; 최은영, 최인령, 2002)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osenberg와 동료들(Rosenberg, Schooler, & Schoenbach, 1989)은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더 많은 비행을 저지른다고 보고하였으며 국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심희옥, 1998)에서도 이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일부의 연구(King & Fularczyk, 1981; Medora & Hellen, 1997; Robinson & Frank, 1994)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문제행동과 의미있는 상관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자아통제는 낮은 학업성취 및 충동, 공격적인 대인관계, 문제해결능력, 스트레스 대처능력(김현숙, 1998; Feldman & Weiberger, 1994; Mischel, Shoda & Peake, 1988) 뿐 아니라 비행(유안진, 민하영, 2001; 하영희, 김경연, 2003; Beck, 1967; Kaplan, 1979)과도 긴밀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로써, 하영희, 김경연(2003)은 중고등학생 650여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통제가 낮은 청소년들은 도덕적 금지행동을 하는 경향이 높음을 보고하였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들은 자아존중감과 자아통제가 공격성, 우울, 폭력 등 문제행동의 중요한 예측변수임을 보여주고 있다.

3. 부모관련 변인

이렇게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자아관련 변인들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최근의 연구들은 문제행동에 대한 초기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Khaleque & Rohner, 2002) 가정환경,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들을 밝히려는 시도들이 늘고 있다.

1)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관련 변인

일반적으로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자녀 관계, 그리고 최근에는 부모감독 등을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변인으로 언급하고 있다. 일련의 연구(김경연, 1993; 손화희, 윤종희, 1990)들은 부모가 애정적인 양육을 하고 자녀와 친밀한 상호작용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에 자녀가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지지와 지원, 그리고 애착 역시 자

녀의 높은 자아존중감이나 심리적 적응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arter, 1988; Maccoby & Martin, 1983). 특히 청년기의 부모에 대한 애착은 사회적 유능성, 정서적 적응, 자아존중감 등 여러 측면에서 행복한 삶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다(Kobak, Cole, Fleming, Ferenz-Gills, & Bamble, 1993).

이미리(2004)는 부모의 폭력 수준 및 감독 수준과 부정적 자아 존중감 간에 상관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폭력 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부모의 감독 수준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폭력이 아동의 발달적 측면에서 신체적,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Steinberg, Lambon, Darling, Mounts, Dornbusch, 1994)은 익히 알려진 바이다. 부모폭력에 따른 아동의 정서적·심리적 후유증은 심각한 경우,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여 친밀한 대인관계를 형성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자아존중감의 손상으로 자신을 확대받을 만한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 결국 부모폭력 피해 아동은 광범위한 문제행동을 나타내고 극심한 공격성을 보일 수 있다. 한편 부모 감독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는 이미리 연구 결과와 달리 연구에 따라 상반된 결과를 보이기도 한다(김경연, 1993; 박선영, 도현심, 1998; 박영애, 정옥분, 1996; 이숙, 최정미, 2003; 천희영, 옥경희, 김미해, 2001).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아동 및 청소년은 일반적으로 자기가 속한 가정환경 내에서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결과로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게 되므로 부모와 관련된 변인은 아동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김은경, 유가효, 2002)을 알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일련의 연구결과들은 자녀발달에 대한 지원적이고 명확한 대화와 애정, 그리고 적당한 통제는 자녀의 긍정적인 자존감 발달과 연관이 있음(Barber & Rollins, 1990)을 보고하고 있다. 반면에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애착 형성이 잘 되어 있지 않고 자녀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을 소홀히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자녀는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자아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관련 변인

자아통제이론에 의하면, 부모의 자녀양육 방법과 노력은 자녀의 자아통제력 수준을 결정한다고 하며, 인생의 초기 단계에 형성된 자아통제력은 일생동안 안정적인 경향이 있다고 한다(김두섭, 민수홍, 1994; 남현미, 옥선화, 2001). 선행연구들은 가족의 형태나 모의 취업여부 등 가족의 물리적 특성보다는 가족관계의 질적인 특성에 따라 자녀의 자아통제력이 달라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낮은 수준의 부모감독이나 높은 수준의 언어적 폭력, 다툼 등의 요인은 자녀의 자아통제 수준을 약화시키는 반면(김두섭, 민수홍, 1994; 민수홍, 1996) 높은 수준의 부모-자녀 간 애착과 감독은 자녀의 자아통제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기광도, 2001). 같은 맥락에서 Gottfredson과 Hirschi(1990)는 부적절한 자녀양육이 낮은 자아통제 수준의 주원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들은 부모가 자녀와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자녀를 가까이에서 감독함으로써 자녀들의 자아통제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경우 자녀들이 비행이

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낮다. 반면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감독 수준이 낮거나 부모-자녀간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할 경우, 부모가 폭력 등을 행사할 경우에는 자녀의 자아통제 수준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3)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부모관련 변인

선행연구들은 부모관련 변인이 자녀의 자아존중감이나 자아통제 뿐 아니라 문제행동에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부모 폭력에 관한 영향을 살펴보면, Sears, Maccoby & Levin(1957)은 아동의 공격성이 가정에서 받는 처벌의 심각성과 정적 상관관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도 부모에게서 폭력을 경험한 아동은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아동보다 친구와 싸우거나 물건을 부수는 등의 문제행동을 더 보이거나(김광일, 고복자, 1987) 청소년의 무단결석, 가출, 폭행, 절도 등의 문제행동과도 더 결부되어 있었다(노성호, 2004).

부모감독 및 애착에 대한 일련의 선행연구들은 부모감독 및 애착이 자녀의 학업이나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박진경, 도현심, 2001; 천희영, 김미혜, 옥경희, 2002; Crouter, MacDermid & Perry-Jenkins, 1990). 학령기 동안 부모의 낮은 감독 수준은 자녀의 낮은 학업성취나 높은 문제행동 수준과 관련이 있으며, 청소년기에는 낮은 부모감독이 범죄나 약물사용과 같은 문제와 관련이 있다(Crouter, Helms-Erikson, Updergraff, & MacHale, 1999). Laird와 그의 동료들(Laird, Pettit & Bates, 2003; Laire, Pettit & Dodge, 2003)은 부모감독이 자녀의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보호변인의 역할을 한다고 지적하였다. Brendgen, Vitaro, Tremblay와 Lavoie(2001)는 낮은 수준의 부모감독은 폭력의 예측요인인 반면, 부모의 애정과 보살핌은 자녀의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폭력적인 행동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Laub과 Sampson(1991)은 부모의 양육방식과 함께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감독 결여, 강압적 처벌, 폭력, 이로 인한 부모와 자녀간의 정서적 유대의 약화가 자녀의 문제행동을 복합적으로 불러일으킨다고 보았다. 정상아동과 반사회적 아동들의 부모를 비교한 연구들(Loeber & Dishion, 1984; West & Farrington, 1973)에서는 반사회적 아동의 부모는 정상아동의 부모보다 자녀에 대한 수용, 온정, 애정, 정서적 지지, 애착의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개인변인과 환경변인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하영희, 2003)에서 부모의 엄격 애정형 양육태도를 높게 지각하고 자아통제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문제행동의 수준이 낮음을 보여주었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자아관련 변인과 부모관련 변인들 간에는 상호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관련 변인과 자아관련 변인이 아동 및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는 가정을 뒷받침해준다. 특히, 부모관련 변인들과 연관하여서 일련의 연구들은 부모와의 애착(Loeber & Dishion, 1984; West & Farrington, 1973)이나 자녀에 대한 부모감독(박진경, 도현심, 2001; 천희영 등, 2002; Crouter, MacDermid, & Perry-Jenkins, 1990), 부모폭력(김광일, 고복자, 1987; 노성호, 2004)이 자녀들의 문제행동과 연관이 되

어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관이 부모관련 변인과 문제행동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이에 어떤 매개변인이 존재하는 것인지에 관한 것은 아직 확실히 규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물론 몇몇 선행 연구들은 부모관련 변인은 특정한 매개 변인을 통하여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기도 하였다. 예로서, 최태산, 홍경자(1997)는 부모의 감독과 통제, 정당한 훈육, 그리고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등은 가족의 응집력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문제행동에 인과적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 남현미와 옥선화(2001)의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의사소통, 부모의 감독 등 가족의 심리적 환경 특성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은 적지만 자아통제와 친구지향성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이 밝혀졌다. 고정자(2005)는 어머니의 취업여부, 부모의 감독정도, 자아통제의 정도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어머니의 취업여부는 부모의 감독정도를 통하여, 부모의 감독정도는 자아통제를 통하여 문제행동에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 그중에서 자아통제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자아통제와 자아존중감은 부모양육을 포함한 가정환경과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 있어 매개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부분적으로 밝혀내기는 하였으나 이 두 변인을 동시에 고려하지는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부모관련 변인 중에서도 부모의 폭력이나 애착, 그리고 감독이 자녀의 부정적 자아존중감이나 자아

통제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결과적으로 아동의 문제행동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 아래 부정적 자아존중감과 자아통제를 동시에 매개 변인으로 고려하여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관련 변인의 직·간접적인 영향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교 4학년 청소년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아관련 변인과 부모관련 변인이 사회적 부적응의 표현으로 간주되는 문제행동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알아보 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이 초등학교 4학년생으로 선택된 것은 이들의 대부분이 아직 사춘기 이전이라는 점에서 비롯되었다. 사춘기 이후의 청소년들이 문제행동을 보일 경우에는, 물론 부모의 영향도 크겠으나 사회활동의 반경이 점차 넓어짐에 따라 친구 등 보다 많은 변인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아직 사춘기 이후만큼 사회활동의 범위가 넓어지지 않아 문제행동 원인에 있어서 부모의 영향이 그 무엇보다도 클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모애착, 부모감독 및 부모폭력 간에는 서로 상관이 있는가?
2. 부모관련변인인 부모애착, 부모감독 및 부모폭력은 자아관련변인인 부정적 자존감 형성 및 자아통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가?

- 2-1. 부모애착, 부모폭력, 부모감독의 정도는 부정적 자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 2-2. 부모애착, 부모폭력, 부모감독의 정도는 자아통제에 영향을 미치는가?
3. 부모관련변인은 문제행동변인인 우울·불안 및 공격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4. 자아관련변인은 문제행동변인인 우울·불안 및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 4-1. 부정적 자존감의 정도는 문제행동변인인 우울·불안 및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 4-2. 자아통제의 정도는 문제행동변인인 우울·불안 및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모형

위와 같은 연구문제에 따라 부모관련변인, 자아관련변인,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연구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1은 부모관련변인인 부모애착, 부모감독, 부모폭력변인이 자아관련 변인을 통하여 문제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자아관련 변인과 더불어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도 미칠 것임을 가정하였다. 이러한 연구모형은 선행연구들의 분석에 의해 도출된 것으로 이 연구에서는 경험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제시한 연구모형이 초등학생의 문제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적합하고 간명한 모형인지 밝혀내고자 하였다. 문제행동은 내재화 문제 중 하나인 우울·불안과 외현화



그림 1. 연구모형

문제 중 하나인 공격성으로 나누어 각각 분석하였다.

명(87%), 95년생 이상은 358명(12.6%)으로 대부분의 학생이 94년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 법

측정도구

연구대상

이 연구는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국청소년패널 조사의 자료를 받아 분석하였다.¹⁾ 패널조사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 학생 2,844명이다. 이들의 성별은 남자 1,524명(54%), 여자 1,320명(46%)이었으며 출생연도를 살펴보면 93년생 이하는 13명(0.4%), 94년생은 2,473

이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초등학교 4학년용 패널 설문지로 그 중에서 부모, 자아 및 문제행동과 관련된 총 28개의 문항들이 선택되어 사용되었다(표 1). 부모관련문항으로는 부모애착에 관한 문항 4개, 부모감독에 관한 문항 3개, 부모폭력에 관한 문항 2개가 선택되었다. 부모애착 문항은 Hirsch(1969, 김준호, 이동원, 1996 재인용)가 제시한 애착의 개념을 바탕으로 김준호, 이동원(1996)이 청소년의 비행에 관한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으로 주로 부모와의 정서적

1) 따라서 본 연구의 조사 자료는 2차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표 1. 각 변인별 문항 및 신뢰도 계수

영역	하위영역	문항
부모관련	부모애착 (.74)	1. 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2. 부모님은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3.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4. 부모님과 나는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
	부모감독 (.79)	1.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2.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3.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부모폭력 (.65)	1.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자주 듣는 편이다. 2.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심하게 맞은 적이 많이 있다.
자아관련	자존감 (.76)	1. 나는 때때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 나는 때때로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3. 나는 때때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는 편이다.
	자아통제 (.57)	1. 나는 내일 시험이 있어도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우선 그 일을 하고 본다. 2. 나는 위험한 활동을 즐기는 편이다. 3. 나는 사람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일이 재미있다. 4. 나는 학교 숙제를 제때에 잘 해 가지 않는 편이다.
문제행동	공격성 (.76)	1. 나는 아주 약이 오르면 다른 사람을 때릴 수도 있다. 2. 누군가 나를 때린다면 나도 그 사람을 때린다. 3.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주 싸운다. 4.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던지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가 있다. 5. 나는 때때로 남을 때리고 싶은 마음을 누를 수 없다. 6. 나는 내 자신이 금방 터질 것 같은 화약과 같다고 생각한다.
	우울·불안 (.80)	1. 나는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는 편이다. 2. 나는 모든 일에 걱정이 많은 편이다. 3.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불안할 때가 있다. 4.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외로울 때가 있다. 5.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슬프고 울적할 때가 있다. 6.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

() =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친밀도를 측정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부모감독 문항은 Hirschi(1969, 김준호, 이동원, 1996 재인용)가 부모에 대한 애착의 하위차원으로 분류한 ‘부모와 동일시’, ‘부모와의 의사소통’, ‘부모감독’ 중 부모감독에 해당하는 문항이다. 이 역시 김준호, 이동원(1996)이 그들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들이다. 부모폭력과 관련해서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신체적 폭력 및 욕설 정도에 대해 물어보는 문항

2개가 포함되었다.

자아관련 문항으로는 자존감(부정적 자존감)에 관한 문항 3개, 자아통제에 관한 문항 4개가 선택되었다. 자존감에 관한 문항들은 기본적으로 Rosenberg(1965)의 척도에서 사용한 문항들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 가운데 자존감은 긍정적 자존감과 부정적 자존감으로 나누어 질 수 있고 이 두 자존감은 서로 독립적이며 특히 부정적 자존감이 높을수록 여러

가지 문제를 보일 수 있다는 주장(이미리, 2004)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자존감을 측정하는 3개의 문항을 선정하였다. 자아통제 문항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Grsmick, Tittle, Bursik, & Armeklev(1993)가 확인한 자아통제력의 6가지 요소 중 화기질과 신체활동 선호, 단순과제 선호를 제외한 충동성(나는 내일 시험이 있어도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우선 그 일을 하고 본다.), 위험한 일의 추구(나는 위험한 활동을 즐기는 편이다.), 자기중심성(나는 사람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일이 재미있다.) 영역에서 각 1개 문항씩 선정하고 인지적 영역의 1개 문항(나는 학교 숙제를 제때에 잘 해 가지 않는 편이다.)을 추가하여 총 4개의 문항이 포함되었다.

문제행동 관련문항으로는 외현적 문제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공격성에 관한 문항과 내재적 문제행동으로 볼 수 있는 우울·불안에 관한 문항이 각각 6개가 사용되었다. 우울·불안과 공격성에 관한 문항은 무작위로 3문항씩 묶어 그 총점을 측정변인으로 사용하였다. 물론 문제행동에는 이 연구에서 사용된 두 가지 측면 외에 다른 측면들도 있겠으나 본 연구의 자료가 2차 자료인 관계로 다른 측면의 문제행동들을 측정할 자료를 구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모든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부모관련 변인의 경우, 부모애착, 부모감독, 부모폭력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애착 수준, 부모감독 수준 및 부모폭력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자아관련변인에서는 자아통제의 점수는 낮을수록, 부정적 자존감의 점수는 높을수록 각각 자아통제 수준과 부정적 자존감

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부정적 자존감의 수준이 높다는 것은 일반적 의미의 자아존중감이 낮음을 나타낸다. 또한 문제행동 관련변인인 공격성 및 우울·불안의 점수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행동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 사용된 도구의 각 하위영역, 즉 부모애착, 부모감독, 부모폭력, 부정적 자존감, 자아통제, 공격성, 우울·불안에 대한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 α 의 범위는 .57에서 .80까지이다. 각각의 신뢰도 계수를 살펴보면, 부모애착은 .74, 부모감독은 .79, 부모폭력은 .65, 부정적 자존감은 .76, 자아통제는 .57, 공격성은 .76, 우울·불안은 .80으로 나타났다.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전행적인 종단적 조사인 한국청소년패널조사는 2004년 제주지역을 제외한 전국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여 층화다단계 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을 통하여 2,844명을 추출하였다. 그들을 대상으로 2004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직업적인 면접원들을 통한 일대일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여기서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 사용된 통계분석은 AMOS 4.0 프로그램을 이용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이다.

결 과

이 연구는 부모관련변인, 자아관련변인,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구조방

표 2. 연구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

(N=2567)

연구변인	1	2	3	4	5	6	7
1. 부모애착	1.00						
2. 부모감독	.46	1.00					
3. 부모폭력	-.30	-.18	1.00				
4. 부정적 자존감	-.25	-.17	.23	1.00			
5. 자아통제	.21	.20	-.24	-.27	1.00		
6. 공격성	-.15	-.11	.23	.40	-.40	1.00	
7. 우울·불안	-.17	-.09	.22	.46	-.19	.39	1.00
평 균	15.63	10.38	3.11	6.54	15.31	10.72	8.09
표준편차	3.02	3.05	1.60	2.68	2.98	3.94	3.82

* 모든 변인들 간의 상관은 $p < .01$

정식모형 분석에 앞서 실시한 7개의 연구변인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 상관계수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와 같이 변인들 간의 상관은 .09~.49로 $p < .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²⁾. 그중에서 가장 낮은 상관을 보인 것은 부모감독과 우울·불안 간의 상관(-.09)이었으며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인 것은 부모애착과 부모감독 간의 상관, 자존감(부정적 자존감)과 우울·불안 간의 상관(각 .46)이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감독과 자아통제를 제외한 다른 변인들은 모두 부모애착과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부모폭력, 부정적 자존감, 공격성, 우울·불안은 부모 감독 및 자아통제와도 부적 상관을 보였다. 한편 부모애착, 부모감독, 자아통제 간에는 서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폭력, 부정적 자존감, 공격성, 우울·불안 간에도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 유의도 수준에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왔으나 전반적으로 낮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 낮은 상관임에도 불구하고 유의한 상관이 나온 데에는 사례수가 많은 것에 기인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상관계수의 정도가 낮은 변인들³⁾ 간의 관계에 대한 것은 실제적으로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바탕으로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이론적으로 도출된 연구모형이 적합하고 간명한 모형인지 밝혀보고자 하였다. 분석방식은 공분산행렬에 기초하여 이루어졌으며, 모형의 계수 추정 방법은 최대우도법(ML)을 사용하였다.

연구모형을 평가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를 산출하였다. 적합도를 판단하는 방법에는 χ^2 를 이용하는 방법과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적합도 지수로는 TLI, CFI, RMSEA 등이 있으며 모형 적합성의 수용가능 수준은 TLI, CFI는 .90이상일 경우, RMSEA는 .05미만인 경우이다(조현철, 2003). 가설화된 우울·불안에 대한 연구모형과 공격성에 대한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각기 검증한 결과는 아래와 같

3) 부모애착과 공격성, 우울·불안 간의 상관, 부모감독과 다른 변인들 간의 상관, 자아통제와 우울·불안 간의 상관계수는 .2 이하로 나타나 특히 낮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다.

우울·불안에 대한 연구모형 검증

가설화된 우울·불안에 대한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chi^2(121, N = 2567) = 526.688$, $p < .01$, CFI = .964, TLI = .955, RMSEA = .036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연구 모델이 자료에 적합함을 보여준다.

가설화된 우울·불안에 대한 모델에서 몇 가지 경로계수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경로는 부모애착→자아통제(= -.066, = .13), 부모감독→부정적 자존감(= -.042, = .21), 부모애착→우울·불안(= -.025, = .49), 부모감독→우울·불안(= .035, = .28)이다. 따라서 유의하지 않은 경로들을 삭제한 수정모델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chi^2(125, N = 2567) = 521.841$, $p < .01$, CFI = .964, TLI = .956, RMSEA = .036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연구 모델이 자료에 적합함을 보여준다.

수정된 모형은 연구모형에 포함된 모형(nested)이므로 두 모형간의 χ^2 와 df 의 차이를 바탕으로 보다 두 모델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두 모형 간의 χ^2 와 df 의 차이를 살펴보면, df 의 차가 $125 - 121 = 4$ 일 때 χ^2 의 차는 $526.688 - 521.841 = 4.847$ 로 df 가 4일 때

$p = .05$ 의 임계치 9.49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료를 설명하는 정도에 있어서 두 모형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 연구모형이 아닌 보다 간명한 수정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홍세희, 2003).

마지막으로 부모폭력→우울·불안 및 부모애착→우울·불안에서는 부정적 자존감이, 부모감독→우울·불안에서는 자아통제가 매개변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렇게 부모관련 변인과 우울·불안 간의 관계에서 자아관련 변인의 매개효과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공식을 이용하여 각각의 Z_{ab} 를 구하였다⁴⁾(표 3). 구해진 Z_{ab} 값은 모두 임계치인 ± 1.96 보다 크거나 작아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5$).

결과적으로 초등학생의 우울·불안을 예측하는데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선정된 수정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와 유의도 수준을 추정하였고 그 결과를 그림 2와 표 4에 제시하였다. 그림 2와 표 4를 바탕으로 분석된 경로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생변인들인 부모애착과 부모감독

4) $Z_{ab} =$



그림 2. 우울·불안 최종 경로모형의 경로도(표준화 경로계수 결과)

및 부모폭력 간에는 서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폭력은 부모애착(-.43) 및 부모감독(-.25)과 각각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부모애착과 부모감독 사이에는 정적상관(.59)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부모폭력의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애착의 수준과 부모감독의 수준은 낮으며 부모애착 수준이 높아질수록 부모감독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둘째, 부정적 자존감과 자아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면, 우선 부모폭력(.25)과 부모애착(-.23)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p < .01$)에서 부정적 자존감 형성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부모폭력이 빈번하고 부모애착정도가 낮을수록 부정적 자존감이 높게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부모폭력이 부모애착보다 부정적 자존감 형성에 약간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이 두 변인의 자존감에 대한 전체 설명량(R^2)은 16%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폭력(.34)과 부모감독(-.2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p < .01$)에서 자아통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부모감독 수준이 높고 부모 폭력 수준은 낮을수록 자아통제의 수준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부모감독 및 부모폭력의 자아통제에 대한 설명량(R^2)은 23%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부모

표 4. 우울·불안 최종경로모형에 대한 추정치 요약

기준 변인	예측변인	전체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R ²
우울·불안	부정적 자존감	.587	.587	-	.441
	자아통제	.102	.102	-	
	부모폭력	.292	.109	.183	
	부모애착	-.135	-	-.135	
	부모감독	-.021	-	-.021	
자아통제	부모폭력	.377	.377	-	.226
	부모애착	-	-	-	
	부모감독	-.209	-.209	-	
부정적 자존감	부모폭력	.247	.247	-	.163
	부모애착	-.230	-.230	-	
	부모감독	-	-	-	

폭력은 부정적 자존감 및 자아통제 수준 모두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반면 부모애착은 부정적 자존감에, 부모감독은 자아통제에만 의미있는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우울·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면, 부정적 자존감(.59)과 자아통제(.10)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p < .01$)에서 우울·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시 말하면 부정적 자존감은 높을수록, 그리고 자아통제는 낮을수록 우울·불안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부모관련 변인 중에서는 부모폭력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우울·불안에 직접적인 영향(.11, $p < .01$)과 간접적인 영향(.18, $p < .05$)을 동시에 끼쳤다. 부모폭력이 우울·불안에 미치는 전체효과는 .29였다. 한편 부모애착(-.14) 및 부모감독(-.02)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p < .05$)에서 간접적인 영향만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인들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부모관련 변인 및 자아관련 변인의 우울·불안에 대한 전체 설명량

(R²)은 44%이며 부모관련 변인보다는 자아관련 변인이 우울·불안과 보다 직접적이고 깊은 연관이 있었다. 부모관련변인 중 부모애착은 부정적 자존감을 통하여, 부모감독은 자아통제를 통하여 우울·불안에 간접적인 영향만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폭력은 우울·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부정적 자존감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관련 변인인 부정적 자존감과 자아통제는 우울·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부정적 자존감의 수준은 높고 자아통제수준은 낮을수록 우울·불안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 가지 하위 변인 중 우울·불안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인은 자아관련 변인 중 부정적 자존감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격성에 대한 연구모형 검증

가설화된 공격성에 대한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chi^2(121, N = 2567) = 532.756$, $p < .01$, CFI = .963, TLI = .953, RMSEA = .036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격성에 대한 연구 모델역시 전반적으로 이 자료에 적합함을 보여준다

가설화된 공격성에 대한 모델 중 유의하지 않은 경로는 부모애착→자아통제(=-.061, $p=.16$), 부모감독→부정적 자존감(=-.041, $p=.21$), 부모애착→공격성(=.075, $p=.06$), 부모감독→공격성(= .064, $p=.07$), 부모폭력→공격성(= .023, $p=.52$)이다. 유의하지 않은 경로들 중 부모감독→공격성에게는 좀 더 완화된 기준인 $p<.01$ 을 적용하여 수정모형에 포함시켰다⁵⁾. 수정모형을 검증한 결과, ($125, N = 2567$) = 539.314, $p<.01$, CFI = .963, TLI = .955, RMSEA = .036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과 수정된 모형, 두 모형 간의 χ^2 와 df 의 차이를 살펴보면, df 의 차가 125 - 121 = 4일 때 χ^2 의 차는 539.314 - 532.756 = 6.558로 df 가 4일 때 $p = .05$ 의 임계치 9.49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다 간명한 수정 모형을 선택하였다.

매개변인을 살펴보면, 부정적 자존감은 부

5) 부모감독→공격성에게는 좀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것은 부모 감독과 자녀의 폭력 및 반사회적 행동, 문제행동 간에 유의한 상관이 있다는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모폭력→공격성 및 부모애착→공격성에서, 자아통제는 부모폭력→공격성과 부모감독→공격성에서 매개변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렇게 부모관련 변인과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자아관련 변인의 매개효과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각각의 Z_{ab} 를 구하였다(표 5). 구해진 Z_{ab} 값은 모두 임계치인 ± 1.96 보다 크거나 작아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5$).

초등학생의 공격성을 예측하는데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선정된 수정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와 유의도 수준 추정결과를 그림 3과 표 6에 제시하였다. 그림 3과 표 6을 바탕으로 분석된 경로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생변인들인 부모애착과 부모감독 및 부모폭력 간에는 서로 상관이 있으며 이는 우울·불안에 대한 모형에서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둘째, 부정적 자존감과 자아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면, 부정적 자존감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모관련 변인은 부모폭력(.25)과 부모애착(-.22)이었다. 두 변인이 가지는 자존감에 대한 전체 설명량(R^2)은 16%이다. 한편 자아통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모관련 변인은 부모폭력(.37)과 부모감독(-.20)변인이었다. 부모감독



그림 3. 공격성 최종 경로모형의 경로도(표준화 경로계수 결과)

및 부모폭력의 자아통제에 대한 설명량(R^2)은 22%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부모폭력은 부정적 자존감 및 자아통제 수준 모두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반면 부모애착은 부정적 자존감에, 부모감독은 자아통제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좀 더 구체적으로 부정적 자존감은 부모폭력 수준이 높고 부모애착정도가 낮을수록 높게 형성되며 자아통제 수준은 부모감독 수준이 높고 부모 폭력 수준은 낮을수록 높게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부모폭력이 부정적 자존감 형성 및 자아통제 수준을 낮추는데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끼쳤다.

셋째, 부정적 자존감(.40)과 자아통제(.56)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p < .01$)에서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부정적 자존감이 높고 자아통제 수준이 낮을수록 공격성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부모관련 변인 중에서는 부모감독(.10)만이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부모폭력(.31), 부모애착(-.09), 부모감독(-.1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p < .05$)에서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부모감독의 경우, 공격성에 대한 직접 효과는 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아통제를 통한 간접효과는 부적인 것으로 나타나 공격성에 대한 전체 효과는 -.01에 그

표 6. 공격성 최종경로모형에 대한 추정치 요약

기준 변인	예측변인	전체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R ²
우울·불안	부정적 자존감	.397	.397	-	.510
	자아통제	.562	.562	-	
	부모폭력	.309	-	.309	
	부모애착	-.088	-	-.088	
	부모감독	-.012	.102	-.114	
자아통제	부모폭력	.373	.373	-	.219
	부모애착	-	-	-	
	부모감독	-.203	-.203	-	
부정적 자존감	부모폭력	.249	.249	-	.160
	부모애착	-.223	-.223	-	
	부모감독	-	-	-	

쳤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논의 부분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모든 변인들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 보면, 부모관련 변인 및 자아관련 변인의 공격성에 대한 전체 설명량(R²)은 51%이며 우울·불안모형에서와 마찬가지로 부모관련 변인보다는 자아관련 변인이 공격성과 보다 직접적이고 깊은 연관이 있었다. 부모관련변인 중 부모폭력은 부정적 자존감과 자아통제 모두를 통하여 공격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편 부모애착은 부정적 자존감을 통하여, 부모감독은 자아통제를 통하여 공격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 감독은 또한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도 미쳤다. 자아관련 변인인 부정적 자존감과 자아통제는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부정적 자존감의 수준은 높고 자아통제수준은 낮을수록 공격성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 가지 하위 변인 중 공격성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인은 자아관련 변인 중 자아통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논의 및 결론

이상에서와 같은 연구결과와 앞에서 고찰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문제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차원에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부모애착과 부모감독, 부모폭력 간에는 서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부모폭력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애착 수준 및 부모감독 수준은 낮았으며 부모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감독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폭력적인 부모는 자녀와의 친밀도가 떨어질 뿐 아니라 자녀에 대한 감독도 잘 하고 있지 못함을 시사한다.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무서운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감독을 잘 하는 것으로 인식되기 쉬우나 이 연구의 결과는 그러한 일반적 상식과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엄격한 부모는 폭력적인 부모와 질적으로 다르다는 기존의 학설(eg. Baumrind, 1971)을 다시 한 번 뒷받침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부모애착과 부모감독 간의 정적인 상관은 부모감독의 효과와 안정적인 부모애

착 간에는 서로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Kerns, Aspelmeier, Gentzler, & Grabil, 2001)와도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이다.

둘째,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부정적 자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관련 변인은 부모폭력과 부모애착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폭력 수준은 높을수록, 그리고 부모 애착 수준은 낮을수록 부정적 자존감이 높게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부모폭력이 부모애착보다 낮은 자존감 형성에 약간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부모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할수록 개인의 긍정적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일련의 연구보고(Maccoby & Martin, 1983; Harter, 1988)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밝혀진 부모폭력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는 부모폭력이 자녀로 하여금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가지도록 하는 것을 비롯하여(이미리, 2004) 발달적 측면에서 신체적, 심리적 부적응을 초래한다(Steinberg et al., 1994)는 선행연구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한편 부모감독은 부정적 자존감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이미리(2004)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만하다. 이미리의 연구 역시 패널자료를 사용한 연구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과 같은 내용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단지 그의 패널대상은 중학교 2학년생이었다. 그의 연구결과에서는 여학생의 경우 부모 감독수준이 높을수록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낮았으나 남학생의 경우에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두 변인 간에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이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지 않아서, 또는 두 연구 간의 연령의 차이에 기인할 수 있다.

셋째,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자아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모폭력과 부모감독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부모폭력과 관련하여 부모폭력의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통제 수준은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부모의 언어적 폭력 등은 자녀의 자아통제 수준을 낮춘다는 선행연구(김두섭, 민수홍, 1994; 민수홍, 1996)의 연구결과와 어느 정도 일치한다.

부모감독 변인과 관련하여 보면, 초등학교 시기에는 부모감독의 수준이 높을수록 초등학생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는 자아통제 수준도 높음을 의미한다 하겠다. 이는 부모감독과 문제행동 간에 유의한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김두섭, 민수홍, 1994)를 뒷받침한다. 또한 높은 수준의 부모감독은 초등학생 자녀의 자아통제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생 자녀의 자아통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부모감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부모애착은 자아통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애착과 자아통제 수준 간에는 상관이 있다는 선행연구(기광도, 2001)와는 다소 다른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애착을 부모-자녀간의 정서적 친밀도를 중심으로 측정하였으며, 따라서 선행 연구와의 결과의 차이는 연구 도구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자아관련변인과 부모관련 변인간의 관계를 정리해 보면, 초등학생 자녀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있어서 부모 감독보다는 부모

폭력이나 부모 애착이 더욱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자아 통제에 있어서는 부모 애착보다 부모감독과 부모폭력이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부모폭력은 초등학교의 부정적 자존감 형성과 자아통제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로 작용하였다.

넷째, 부모폭력과 부모감독은 우울·불안과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부모 애착과 더불어 부모폭력, 부모감독은 부정적 자존감과 자아통제를 매개변인으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불안에 영향을 주는 부모관련 변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부모폭력은 우울·불안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부모폭력의 수준이 높을수록 초등학교 자녀의 우울·불안 수준은 높았으며 또한 부모폭력 수준이 높을수록, 부정적 자존감을 형성하게 하고 자아통제 수준을 떨어뜨림으로써 우울·불안 수준을 높였다. 반면 부모애착과 부모감독은 우울·불안에 간접적인 영향만을 끼쳤다. 즉 낮은 부모애착 수준은 초등학교생들로 하여금 부정적 자존감을 형성하도록 함으로써, 그리고 낮은 부모감독 수준은 자아통제 수준을 떨어뜨림으로써 우울·불안 수준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부모관련 변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애착은 공격성에 간접적인 영향만을 끼쳤다. 즉 높은 부모애착 수준은 초등학교생들로 하여금 부정적 자존감을 형성을 낮추도록 함으로써, 공격성 수준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 폭력과 부모감독은 공격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모두 미쳤다. 직접적인 영향으로 부모폭력과 부모감독은 그 수준이 높을수록 초등학교 자

녀의 공격성 수준을 높였다. 간접적인 영향으로는 부모폭력의 경우, 그 수준이 높을수록, 부정적 자존감을 형성하게 하고 자아통제 수준을 떨어뜨림으로써 공격성 수준을 높였다. 부모감독의 경우에는 높은 수준의 부모감독이 자아통제 수준을 높임으로써 공격성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관련변인이 직·간접적으로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는 일련의 선행연구에서도 나타났다. 우선 부모폭력 및 감독과 관련하여 일련의 선행연구들(Frude, 1984; Patterson & Stouthamer-Loeber, 1984; Sturge, 1982; Webster-Stratton & Herbert, 1994)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그들 부모가 자녀 양육경향에 있어서 폭력적이고 비판적인 것을 포함, 엄격한 훈육을 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여 아동의 문제행동은 가정의 폭력과 정적인 관계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Sears et al., 1957). 또한 부모애착과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일련의 선행연구결과(Hurlock, 1978; Loeber & Dishion, 1984; West & Farrington, 1973)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기서 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공격성에 대한 부모감독의 효과와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나누어 보았을 때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는 점이다.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공격성에 대한 부모감독의 직접적인 효과는 부정적인 반면 자아통제를 통한 간접적인 효과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부모감독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문제행동 수준이 낮았던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높은

부모감독수준이 자아통제수준을 높임으로써 공격성 수준을 낮추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부모감독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자아통제가 높아질 경우에는 공격성이 감소되는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나 부모감독이 자아통제로 이어지지 못하고 단순한 행동통제에 그칠 경우에는 공격성을 증가시키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역효과는 아마도 자녀들이 부모의 감독을 간접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일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부모감독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녀의 자아통제력을 높이는 것이어야 함을 점을 시사해 준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어디까지나 유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다 정확한 관계 규명을 위해서는 실증연구가 필요하다.

부모감독수준이 높을수록 초등학생들의 공격성 수준이 높았던 결과에 대한 또 다른 가능성은 선행연구결과에 비추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몇몇 선행연구(Frude, 1984; Sturge, 1982)에서는 문제행동을 많이 보이는 자녀의 부모는 양육태도와 실제적인 훈육에서 엄격한 경향을 보인다는 경향을 밝혔다. 문제행동을 보이는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자녀의 문제행동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자녀의 행동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감독,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부모감독수준과 공격성과 같은 문제행동 간의 보다 명확한 관계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부모폭력, 애착 및 감독과 같은 부모관련변인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단 본 연구에서는 부모관련 변인이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 뿐 아니라 부정적 자존감과

자아통제라는 자아관련 변인을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도 동시에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부모애착은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자존감이라는 자아관련 변인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애착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낮아지며 결과적으로 문제행동 수준도 낮아짐을 알 수 있다.

한편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애착의 직접효과는 그리 크게 작용하고 있지 않음이 드러났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비행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이경님, 2002)에 의하면 여학생 집단에서는 두 요인 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나 남학생집단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비행행동에 간접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에 비추어 생각해 볼 때, 본 연구에서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애착의 직접효과가 보이지 않은 것은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지 않은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가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문제행동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아관련변인으로, 부정적 자존감이 높고 자아통제수준이 낮을수록 문제행동 수준이 높게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이는 자아통제를 잘 하는 아동 및 청소년일수록 위기상황에서 문제행동을 덜 보인다는 선행연구(Feldman & Weiberger, 1994)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자존감과 비행, 공격적 불안과 같은 문제행동 간에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Kaplan, 1979)와는 부분적으로 일치하나 자존감과 문제행동 간의 상관이 유의미하지 않다는 선행연구(Robinson & Frank, 1994)와는 불일치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인들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부모관련 변인 및 자아관련 변인에 따라 문제행동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아관련 변인이 부모관련 변인에 비해 문제행동에 보다 직접적이고 깊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자아관련 변인 중 부정적 자존감은 문제행동 중 우울·불안과, 자아통제는 공격성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자아통제와 자존감이었으니만큼 아동 및 청소년들의 문제행동 예방 및 치료를 위해서는 이 두 영역에서의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울·불안이 높은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는 자존감 향상을 위한 다양한 자기개발 프로그램이, 공격성이 높은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는 자아통제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 실시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자아관련변인이 문제행동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나 부모관련변인 역시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 뿐 아니라 자아관련변인을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문제행동원인 변인으로서 소홀히 다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부모폭력은 자녀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부정적 자존감을 높이고 자아통제수준을 낮춤으로써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부모폭력으로 인한 자녀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녀 학대 등의 경험이 있는 부모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마련됨으로써 부모폭력

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부모감독은 자아통제라는 변인을 통해서만 공격성을 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점은 자녀에 대한 부모감독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부모는 자녀를 감독하는데 있어 자녀들의 자아통제능력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자녀행동에 대한 무조건적인 통제는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 및 청소년 뿐 아니라 현재 문제행동을 보이지 않더라도 부모폭력 수준이 높거나 부모애착 및 부모감독 수준이 낮은 아동 및 청소년들, 또는 전반적으로 부정적 자존감이 높고 자아통제력이 낮은 아동 및 청소년들은 문제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을 문제행동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분류, 그들을 위한 종합적이고도 다양한 예방대책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제한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의 대상이 초등학교 4학년 학생으로 국한되어있다는 점은 이 연구가 지니는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초등학교 4학년 시기는 아동기 후기 또는 청소년기에 접어들기 시작하는 단계로서 사춘기 이후의 단계에서는 이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춘기 이후 자아관련변인과 부모관련변인이 문제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은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로는 이 연구에서는 준거변인으로 사용된 문제행동변인을 세분화하여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이 연구에서 문제행동을 외현화 영역과 내재화 영역으로 나누어 각 영역의 문제인 우울·불안과 공격성을 보긴 하였으나 실제로 문제행동에는 보다 다양한 유형들이 있는 바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문제행동을 포함시켜 이러한 문제들이 자아관련 변인 및 부모관련 변인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밝힐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문제행동을 예측하는데 있어 부모관련변인 세 가지와 자아관련 변인 두 가지만을 예측변인으로 사용하였다. 문제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은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 연구에서 언급된 변인 이외의 어떤 변인들이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그 중에서 좀 더 영향력 있는 변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앞의 제한점들과도 연관하여 고려해 볼 문제로서 패널조사 자체가 지닌 한계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패널조사는 다양한 영역의 변인들을 포함해야 하는 특성상 각 변인들을 측정하는 문항수가 적다. 그에 따라 패널조사에 포함된 문항들이 각 변인들을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하고자 한다.

다섯째,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감독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다른 방향성을 갖는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원인을 제시하지 못했다.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감독의 직접효과는 부정적인 반면 자아통제를 통한 간접효과는 긍정적인 것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명을 위하여 후속연구가 제안되어진다.

이상과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는 아동 및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관련변인과 자아관련변인들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에 대한 규명을 해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료수집이 층화다단계집락표집을 통한 대단위 전국표본조사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성혜(1994). 청소년기 가족문제-청소년이 겪고 있는 가족 내 문제의 실태와 지원 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고정자(2005). 부모의 감독정도와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3(2), 1-17.
- 기광도(2001). 사회계층과 범죄행위 간의 관계: 자녀 양육 및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경연(1993). 어머니 관련변인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종단적 자료의 인과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6(1), 37-50.
- 김광일, 고복자(1987). 가정폭력. 서울: 탐구당.
- 김두섭, 민수홍(1994). 개인의 자기 통제력이 범죄억제에 미치는 영향.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은경, 유가효(2002). 아버지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 문제행동 간의 관계.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준호, 김순형(1995). 가정환경과 청소년비행.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 노성호(1993). 학교가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 이동원(1996). 청소년의 긴장과 비행.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현숙(1998). 청소년의 건강행위와 영향요인에 관한 모형구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남소현, 김영희(2000). 어머니의 심리적 환경요인

- 과 아동의 외현적, 내면적 부적응 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8(10), 199-213.
- 남현미, 옥선화(2001). 가족의 심리적 환경과 청소년의 자기 통제력 및 친구특성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9(7), 37-58.
- 노성호(2004). 청소년비행원인들의 연합효과에 대한 검증. 한국청소년 패널조사(KYPS) II.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민수홍(1996). 비행의 조기예측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선영, 도현심(1998). 가족기능 및 자아존중감과 청소년의 외로움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9, 229-244.
- 박영애, 정옥분(1996).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 관계 연구. 아동학회지, 17, 189-212.
- 박진경, 도현심(2001). 어머니의 감독 및 감독방법이 청소년의 외현화, 내면화 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9(12), 129-140.
- 손화희, 윤종희(1990).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및 양육태도와 아동기 자녀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1(1), 5-71.
- 송의열, 이미자(2001). 유아의 문제행동과 양육태도. 공주영성정보대학논문집, 8, 153-177.
- 심희옥(1997a). 아동후기 초등학생의 우울성향: 일상적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기술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6), 133-144.
- 심희옥(1997b). 아동후기 초등학교 학생의 내적·외적 문제행동인 우울성향과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아동학회지, 18(1), 39-52.
- 심희옥(1998). 아동후기 초등학교 학생의 부적응 생활사건,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원과 부적응에 관한 종단 연구. 아동학회지, 19(2), 35-48.
- 원호택(1991). 청소년 범죄행동 유발 원인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 유안진, 민하영(2001). 시설보호 아동이 자아정체감 및 내적인 통제소재와 보육사가 평가한 행동문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2), 97-109.
- 이경남(2002). 청소년의 애착, 자아존중감 및 충동통제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 191-206.
- 이미리(2004). 청소년 초기 자아존중감 발달과 가족, 친구, 학업, 여가, 직업 맥락 변인들의 관계: 긍정적 자아 평가와 부정적 자아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II,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 04-R01-1.
- 이숙, 최정미(2003).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또래수용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 191-206.
- 이종원, 임성택, 최원기, 최종현 (2001). 전국청소년 문제행동 실태조사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조현철(2003). 구조방정식모델. 석정.
- 정유미, 김득성(1998). 청소년의 환경적 변인 및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부산실내 실업계 여고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3), 31-45.
- 천희영, 김미혜, 옥경희(2002). 어머니의 자녀 감독 지식과 근원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3(3), 171-186.
- 천희영, 옥경희, 김미혜(2001). 학령기 아동의 자기보호와 부모감독에 따른 또래관계 및 인지적 자기 능력지각. 대한가정학회지, 39, 153-168.
- 최은영, 최인령(2002). 청소년 자아존중감과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한국학교보건학회지, 15(1), 63-72.
- 최태산, 홍경자(1997). 청소년 문제행동에 관한 심리적 변인 분석. 한국교육심리학회, 11(2), 291-322.
- 하영희(2003). 개인변인과 환경변인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4(2), 29-40.
- 하영희, 김경연(2003). 청소년의 도덕적 금지행동과 개인 및 가정환경 변인간의 인과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1), 16-30.
- 홍세희(2003). 구조방정식 모형의 원리와 응용. 경영학 연구조사방법 뉴트렌드(pp.25-52). 이화여자대학교 경영연구소.

- Achenbach, T. M., & Edelbrock, C. S.(1981). Behaviour problems and competencies reported by parents of normal and disturbed children aged four through sixtee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46(1, Serial No. 188).
- Barber, B. K. & Rollins, B. C.(1990). *Parent adolescent relationship*. Lanham, M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 Barnes, G. M. & Farrell, M. P.(1992). Parental Support and Control as Predictors of Adolescent Drinking, Delinquency, and Related Problem Behavio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4), 763-776.
- Baron, R. M. & Kenny, D. A.(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aumrind, D.(1971). Current patterns of parental autho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Monographs*, 75, pp.43-88.
- Beck, A. T.(1967). *Depression: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New York: Harper and Row.
- Brendgen, M., Vitaro, F., Tremblay, R. E., & Lavoie, F.(2001).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Predictions to physical violence in different contexts and moderating effects of parental monitoring and caregiving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9, 293-304.
- Crouter, A. C., Helms-Erikson, H., Updegraff, K., & McHale, S. M.(1999). Conditions underlying parents' knowledge about children's daily lives in middle childhood: Between-and within-family comparisons. *Child Development*, 70(1), 246-259.
- Crouter, A. C., MacDermid, S. M., & Perry-Jenkins, M.(1990). Parental monitoring and perceptions of children's school performance and conduct in dual and single-career families. *Developmental Psychology*, 26, 649-657.
- Feldman, S. S., & Weiberger, D. A.(1994). Self-restraint as mediator of family inquent behavior: A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65, 195-211.
- Frude, N. (1984). Frameworks for analysis. In N. Frude & H. Gault, *Disruptive behaviour in schools*. Chichester: Wiley.
- Gottfredson, M. & Hirschi, T.(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Palo Alto,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Grsmick, H. G., Tittle, C. R., Bursik, R. J., & Armeklev, B. J.(1993). Testing the core empirical implication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of in Crime and Delinquency*, 30, 5-29.
- Harter, S.(1988). Developmental processes in the construction of the self. In T. D. Yawkey & J. E. Johnson(Eds.). *Integrative process and socialization: Early to middle childhood*. Hillsdale, NJ.: Erlbaum.
- Hurlock, E. B. (1978). *Child development(6th ed.)*. McGraw Hill, Co.
- Kaplan, H. B.(1979). Anxiety, self-derogation, and deviant behavior. In W. E. Fann, I. Karacan, A. D. Pokorny, & R. L. Willims(Eds.), *Phenomenology and treatment of anxiety*. New York: Spectrum.
- Kerns, A., Aspelmeier, J., Gentzler, A., & Grabil, C. (2001). Parent-child attachment and monitoring in middle childhood.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5(1). 69-81.
- Khaleque, A. & Rohner, R. P. (2002). Perceived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A meta-analysis of cross-cultural and intracultural stud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 54-64.

- King, M. L. & Fularczyk, J.(1981). *Rural adolescent delinquents: Their self concept, giftedness and perceived parental support*.(ERIC Reproduction Document No. ED 221 963)
- Kobak, R., Cole, C., Fleming, W., Ferenz-Gills, R., & Bamble, W.(1993). Attachment and emotional regulation during mother-teen problem-solving: A control theory analysis. *Child Development, 64*, 231-245.
- Laird, R, Pettit, G., & Bates, J.(2003). Parents' monitoring-relevant knowledge and adolescents' delinquent behavior: Evidence of correlated developmental changes and reciprocal influences. *Child Development, 74(3)*, 752-768.
- Laird, R., Pettit, G., & Dodge, K.(2003). Change in parents' monitoring knowledge: Links with parenting, relationship quality, adolescent beliefs, and antisocial behavior. *Social Development, 12(3)*, 401-419.
- Laub, J. H. & Sampson, R. J. (2001). Understanding desistance from crime. In M. Tonry (Ed.). *Crime and Justice: A Review of Research, vol. 28*. pp.1-69.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eung, K. & Drasgow, F.(1986). Relation between self-esteem and delinquent behavior in three ethnic groups: An application of item response theor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7*, 151-167.
- Loeber, R., & Dishion, T.J. (1984). Boys who fight at home and school: family conditions influencing cross-setting consistenc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2*, 759-768.
- Maccoby, E. E., & Martins, J. A.(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Parent-child interaction. In E. M. Hetherington(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4th ed.)*. New York: John Willey & Sons.
- Medora, N. P. & von der Hellen, C.(1997). Romanticism and self-esteem among teen mothers. *Adolescence, 32*, 811-824.
- Mischel, W., Shoda, Y., & Peake, P.K..(1988). The nature of adolescent competencies predicted by preschool delay of gra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687-696.
- Patterson, G. R., & Stouthamer-Loeber, M. (1984). The correlation of family management practices and delinquency. *Child Development, 55*, 129-307.
- Rae-Grant, N., Thomas, B. M., Offrod, D. R., & Boyle, N. M. (1989). Risk, protective factors and the prevalence of behavioral and emotional disorders in children and adolescent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8*, 262-268.
- Robinson, R. B. & Frank, D. I.(1994). The relation between self-esteem, sexual activity, and pregnancy. *Adolescence, 29*, 27-36.
- Rosenberg, M.(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 image*.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enberg, M., Schooler, C., & Schoenbach, C. (1989). Self-esteem and adolescent problems: modeling reciprocal effec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4*, 104-1018.
- Sears, R. R., Maccoby, E. E., & Levin, H. (1957). *Patterns of child-rearing*. Evanstan, IL: Row & Peterson.
- Steinberg, L., Lambon, S.D., Darling, N., Mounts, N.S., & Dornbusch, S.M.(1994). Overtime changes in adjustment and competence among adolescents from authoritative, authoritarian, indulgent, and neglectful families. *Child Development, 65(3)*, 754-770.
- Sturge, C. (1982). Reading retardation and antisocial behaviour.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3*, 21-31.

- Webster-Stratton, C., & Herbert, M. (1994). *Troubled families - problem children: working with parents: a collaborative process*. Chichester: John Wiley & Sons.
- West, D. J., & Farrington, D. P. (1973). *Who becomes delinquent?* N.Y.: Crane, Russak & Co.

1차 원고 접수 : 2006. 7. 15
수정 원고 접수 : 2006. 8. 25
최종게재결정 : 2006. 8. 26

The effects of parents-related variables and self-related variables on children's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Hye-Jeong Baek

Korea Institute for Youth
Development

Hyejung Jin Hwang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Kyonggi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parents-related variables and self-related variables on children's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with 2,844 4th graders in elementary schools. They are the 2005 panel of Korean Youth Panel Study by Korea Institute for Youth Development. According to the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this study found the effects of parents-related variables such as parental attachment, family violence, and parent supervision, and self-related variables such as self-esteem and self-control on children's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The self-related variables, in comparison with parents-related variables, are more likely to have direct and considerable influences on the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and the self-esteem is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 A interesting finding is that the direct and the indirect effects of parent supervision on the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are contrary to each other. The direct effect showed that the level of the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increases as the level of parent supervision increases. On the other hand, as the level of parent supervision increases, the level of the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decreases through increasing the level of self-esteem. These findings are thoroughly discussed.

Keywords: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parental attachment, family violence, parent supervision, self-esteem, self-control